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관점에서 본 호주의 EYLF 교육내용과 실제

유희정*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호주의 영유아교육과정 기본틀인 EYLF의 교육내용과 실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영유아기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호주의 영유아교육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현장을 참관하고 그와 관련하여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호주 정부가 발간한 영유아교육과정 문헌들을 분석, 검토하였다. 호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영유아기의 자연친화적인 환경교육부터 시작하였으나 환경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인권, 평화, 시민, 다문화 교육 등과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호주의 EYLF에서는 환경교육, 아동 친화적 인권교육, 공동체적 다문화 교육을 교육내용과 실제에 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이러한 호주 영유아기 교(보)육의 지속가능발전교육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영유아기 교(보)육 현장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재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지속가능발전교육, 호주 EYLF, 환경교육, 영유아교(보)육

*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부교수, jjhj87@hanmail.net

I. 머리말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이상기후 현상, 황사현상과 같은 환경요인과 문화적 편견, 인종 차별 등이 존재하는 오늘날, 현세대의 삶은 물론이고 미래의 삶까지도 위협받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인간과 자연,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지구, 자연,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변화에는 인간의 변화,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김숙자, 이경혜, 2015).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유네스코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지정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틀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적합한 환경에서 적절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으로 단순한 환경적 지속가능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인간적 지속가능성을 내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존중, 미래세대 존중, 생태적 다양성 존중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네가지를 최소한의 핵심가치로 보고 있다(UNESCO, 2008). 이는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환경교육,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등과 직접 연계되는 개념으로,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밀접한 개념이며 기존 삶의 가치, 태도, 생활방식 등을 전환시키는 패러다임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권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공존

을 추구하는 평화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문화적 지역 환경 속에서 여러 민족과 공생하는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교육은 평생학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영유아시기에 시작되어야 함을 유네스코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UNESCO, 2008).

‘영유아기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환경을 넘어선 바깥놀이 시간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연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통합적인 학습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차이와 평등, 공정함을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영유아기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 탐색하고 스스로 세상을 해석하고 노력해가면서 성장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김규수, 2012), 문화 다양성, 인종, 성역할, 환경 등에 대한 가치와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영유아기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해 나가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태도, 가치관,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할 뿐 아니라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유아시기 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 역시 교육의 의제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 2009년 지속가능발전교육 한국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육부, 환경부, 행정부가 협력하여 ‘녹색성장 교육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

였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녹색성장교육을 추진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 2009). 그러나 이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에 최우 선 과제가 되어야 할 형평성, 자연과의 조화, 사회정의, 평화의 개념 이 담겨있는 '지속성',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환경교육의 개념으로 축소하거나 혼용하면서 학교교육에 혼란만 야 기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영유아교육현장도 마찬가지여서 일부 환 경교육이나 생태보육의 이름으로 유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는 있으 나 이것을 유네스코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가치가 실행 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¹⁾(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7).

그렇다면 한국의 영유아시기에서 실시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 제는 무엇인가? 영유아시기에 실시하는 교육이 지속가능성 삶을 실 현할 수 있는 교육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영유아시기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관점에서 실행하고 있는 타국가의 교육과정과 실재를 찾아보 고 이를 통한 재조명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최근 독일, 영국,

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07)는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사회문화 경제의 세 가지가 중심적인 축을 핵심가치로 보고 이를 이루며 자연과 환경의 건강 성을 유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국제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이 가능해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영역은 환경오염·파괴를 막고 지구 수용력을 유 지하며 자연생태계를 개발하는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 경제영역은 빈곤 퇴치와 성장을 통한 발전을 추구한다. 다만 기존의 발전과 달리 경제성장 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해 고려한다. 사회영역은 평화 평 등 정의 인권 민주주의등 가치를 지향 하고 사회 통합을 방해 하는 갈등 요소를 줄여 사회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 심내용은 자연자원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과 같은 환경적 측면, 인권 문화 적다양성, 양성평등 사회적정의 건강 등과 같은 사회적 측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시장경제 빈부격차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이해와 이에 포함된 가치와 실천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신은수, 박은혜, 2012).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면서 학교교육에 포함하고 있다. 그중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문화유산 등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행에 있어서 국가정책과 학교현장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호주위원회가 위치한 아델레이드(Adelaide)는 자유이민을 위한 지역으로 이민자들이 종교의 박해를 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자유를 보장받고 인권을 존중한 호주 유일한 도시로, 도시 절반이 공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학교 안 밖으로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확장되어가면서 평생 교육적 가치로 살아 움직이는 곳이 아델레이드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2015년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호주의 아델레이드를 방문하여 남호주 대학과 플린더스 대학 교수와의 미팅, 캐리어린이 센터, 일리도 어린이 센터, 캥거루 아일랜드 교육커뮤니티의 스태프들과의 면담을 하였다. 참관 및 면담일자는 <표 1>과 같으며 면담내용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하고 있는지, 호주 EYLF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내포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얻은 녹음자료와 기록 자료는 전사하였다. 그 외 호주정부의 White paper, 문헌연구를 토대로 세계적으로 정평 있는 호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영유아교육과정인 EYLF의 교육 실재를 고찰하면서 한국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에 시사하는 바를 탐구하고자 한다.

〈표 1〉 참관 및 면담 일정

참관 및 면담 일정	장소	참여자
2015,6,21	1.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Magil Campus 2. Magil Campus 부속 어린이센터	Victoria 교수, 사범대학 행정 교직원 원장, 교사
2015,6,22	Lady Gowrie Child Centre	게리어린이센터장 직원, 교사
2015,6,23	il nido Child Centre	일리도 어린이센터 장 직원, 교사
2015,6,24	Flinders University	P. Slee /Susan 교수 국제교류원 직원
2015,6,25	Flinders University Child centre	플린더스 대학 부속 어린 이 센터장, 원감, 교사
2015,6,27 ~ 29	Kangaroo Island Community - Parndana Campus - Kinscote Campus - PenneshawCampus	Bob, Jane 교수 커뮤니티 교사, 직원

II. 호주 지속가능발전교육 도출배경과 EYLF 교육내용

1. 호주 지속가능발전교육 도출의 사회적 배경

호주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환경교육에서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다. 1970년대 호주의 유네스코 위원회는 국가적 준비의 일환으로 '교육과 인간 환경'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환경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 자료 개발에 환경교육을 우선 분야로 선정하였다(김은정, 유영의, 신은수, 박은혜, 2013). 그 후 1990년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리우회의를 통해 호주에 소개되었다. 지속가능성은 기존의 환경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시스템이나 그에 따른 기존의 관점을 버리고 세대 내, 세대 간을 비롯한 시간적인 측면과 지구 전체의 삶을 조명하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념이다(남경희, 조의호, 2013). 호주 환경교육은 자연환경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경제, 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점차 포용한 것에 맞물려 자연스럽게 지속가능성 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즉 지속가능성 교육은 환경교육의 연장으로 무엇을 배우느냐 뿐 만 아니라 어떻게 배우느냐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 간 것이다(DEH, 2005).

1999년도 아들레이드 선언을 통해 호주 주 정부들은 학생들이 반드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을 갖는 것을 21세기 학교교육 목표로 삼아야 함을 합의하였다. 이어 2009년 '지속가능하게 살아가기; 호주정부의 지속가능성 교육을 위한 국가 실행계획(Living Sustainably: The Australian Government's National Action Plan for Education for Sustainability)'을 발표하면서 변화와 전환, 비판적 사고, 모든 이를 위한 교육, 평생학습, 변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지속가능성 교육에 포함하였다. 이는 환경교육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로 유네스코가 말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다.

현재 호주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달성하려고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국가 지속가능성 교육 네트워크, 국가 지속성 교육 연

구 프로그램, 호주 지속성 학교운동을 통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파트너십을 잘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학교 전체의 접근법(whole school approach)'을 실시하였다(김은정 외, 2013). 학교 수준에서는 지속가능 학교 운동의 전체학교 접근확대, 학교의 지속가능성 환경교육 지원 시스템 개선, 학교기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통합, 교사의 환경 교육 전문성개발, 교육 과정 상에 지속가능성 환경교육 투입을 추진하였다(최석진 외, 2009). 특히,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국가실행계획 중 하나로 영유아기 부터 환경교육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국가수준의 영유아교육과정인 EYLF(Belonging, Being & Becoming: 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for Australia)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다.

2. EYLF의 교육내용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호주는 가족정책이나 일가정 양립에 많은 투자를 해 온 국가가 아니며, 여성의 취업을 고무하지 않는 상황들로 인하여 타 국가들에 비해 여성취업률도 낮고 출산율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는 나라였다. 이에 국가는 가족 및 아동 정책을 우선시 하는 정책 및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영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육과 교육이 이분화된 체계였으나 세계적으로 저출산화, 노령화,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요구도가 많아지고 OECD와 UNESCO에서 보육의 중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영

아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면서 호주에서도 시대적 요청에 따른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 OECD 유아 교육·보육정책으로 Starting Strong 권고 후 교육과 보호, 아동안전,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고, 참여 아동의 교육과 발달 성과를 증진하며, 보호와 교육 질적 수준의 지속적 개선을 증진시키면서 보육과 교육이 함께 가기를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13년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두게 되는 일원화 정책이 이루어진 것이다.

호주의 일원화 정책은 부서의 통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의 영유아가 환경에 따라 또는 요구도에 따라 유치원과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제 보육시설(Long Day Care)도 유치원과 동일한 위치에서 유아교육과정인 EYLF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는 0~5세가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 학습체계를 구성한 것으로 교사 지침서 역시 종일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와 유아교사에게 동일한 지침서를 제공하였다. 즉 EYLF는 환경, 자원, 프로그램의 내용에 상관없이 초등교육 이전 영유아를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보호와 교육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교육과정인 것이다(유희정, 2016).

EYLF의 토대는 소속감(Belonging), 존재감(Being), 자아형성(Becoming)이다. 소속감(Belonging)은 아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으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존재감(Being)은 아동의 현 상태의 중요성 인식으로, 현재와 자신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도전을 맞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자아 형성(Becoming)은 아동기 동안 자아정체, 지식, 능력, 기술, 관계 형성 등이 변화하는데 그 때 배우

고 성장하면서 빠르고 중요한 변화의 과정을 반영하고 그들만의 모습으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을 말한다(서문희, 이해민, 2013;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7). 이러한 소속감(Belonging), 존재감(Being), 자아형성(Becoming)을 토대로 EYLF는 교육과정의 원리(Principles)와 실제(Practice), 학습의 결과(Learning Outcomes)가 구성된다. 원리는 학습결과와 관련하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모든 영유아를 도와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제에 기반으로 한다. 그 원리에는 안전, 존중 그리고 상호관계, 가족과의 협력, 질 높은 기대와 형평성, 다양성의 존중과 공평함, 지속적인 학습과 실제의 반영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실제는 교사의 역할을 지시하는 것으로 총체적인 접근으로 놀이를 통해 학습하게 하고 교육에 있어 목적의식을 가지며 환경을 학습하고 문화적 역량을 구축하며 다음 교육기관의 전이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학습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도록 한다.

요컨대 EYLF의 교육원리와 실제에는 영유아에게 가족, 그 외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존중을 강조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문화적 역량을 추구하고 환경을 학습하고 그들의 발달에 적합한 놀이중심의 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교육과 더불어 인권 존중, 다양한 문화 수용 등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권존중, 미래세대 존중, 생태적 다양성 존중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최소한의 핵심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09). EYLF에서 함께 제공하는 교사 지침서에도 마찬가지이다. 제시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목표로 능동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책임감과 권리, 다양성에 대한 존중, 공정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환경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영유아를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상의 EYLF의 교육내용과 교사지침서는 호주정부에서 주장하는 영유아교육의 비전을 창출하기 위함이다(Australian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모든 어린이는 자신과 국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출발을 해야 한다.’

영유아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화하고 미래의 학습 성공을 위한 토대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재를 호주 국가수준의 EYLF 교육 실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Ⅲ. 지속가능발전교육관점에서 본 EYLF의 실제

1.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자연 친화적 환경 교육

본 연구자가 방문한 아들레이드 남쪽에 위치한 캥거루 아일랜드는 공기가 좋고 자연적이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 곳의 커뮤니티 센터, 학교에서는 생태 및 친환경적 삶을 주장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캥거루 아일랜드 커뮤니티의 어린이 센터, 고등교육, 환경 등을 소개해준 호주 대학의 교수였던 Bob과 Jane 부부는 인터뷰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 대해 강조하였다.

‘캥거루 아일랜드의 자연환경은 좋지만 늘 보존과 개발이라는 논쟁에 놓여 있습니다. 개발을 이루되 기존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의 낭비를 줄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최근 호주가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략) 이러한 것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Pandana School 교사들은 지속적인 교사 연수를 받으며 이를 아동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략)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2015, 6, 28, 면답)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해서 호주는 환경교육을 분리할 수 없다. 1980년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호주의 학교교육은 모든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국가선언을 하였으며 학교 운동의 전체학교 접근 확대, 학교의 지속가능성 환경교육 지원 시스템 개선, 학교기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통합, 교사의 환경 교육 전문성 개발, 교육 과정 상에 지속가능성 환경교육 투입과 더불어 유아기부터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최석진 외, 2009). 이들의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은 현재 뿐 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자연환경 안에서 환경에 대한, 환경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 과정 자료개발에서 환경교육을 우선분야로 선정하였다. 영유아교육 과정인 EYLF 교사 지침서 역시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관련한 실재가 제시되어있다. 그중 하나는 ‘Learning environments(환경을 학습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환경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영유아를 기르는 것에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제로 영유아들에게 자연에 대한 존중과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례와 시범을

보이고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땅, 사람, 식물과 동물들이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연을 보호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자가 참관한 호주 교육기관의 대부분 교육은 자연적 친화적인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었다. 넓은 잔디와 나무, 풀이 있고 단층 건물로 교실에서 실외놀이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으며 교육은 자연 친화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되었다. 실외놀이는 꼭 실외놀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발코니에서 간식을 먹다가도, 실내에서 미술활동을 하다가도 실외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매일 수시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놀이기구는 대부분 나무, 돌, 잔디, 흙으로 이루어진 계단 등이고 작더라도 텃밭을 운영하여 직접 키운 텃밭의 음식들로 요리를 해먹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다. 비단 실외놀이만 자연친화적 환경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 실내 놀이감 역시 목재나 씨앗, 부드러운 천 등으로 구성하고 있었으며 놀이감도 플라스틱 위주의 인공적인 놀이감 보다는 자연적인 놀이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호주의 Flinders University 부속 유치원의 원장은 자연 환경 교육과 영유아의 발달을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우리 기관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 자연적이라는 교육 철학 아래 영유아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아이들의 놀이감은 대부분 자연물로 이루어져 있고 실외에서도 정해진 놀이감이 아니라 모래, 흙, 자연물을 탐색하도록 합니다. 영유아들에게 자연 환경은 영유아의 상상력을 증

진시키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합니다. 실외 놀이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언덕이나 모래밭을 시멘트로 평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통해서 영유아들은 대근육, 소근육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2015, 6, 25, 면담)

이와 같은 발언은 인간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살아가고 있다는 생태적 지속가능성(ecological sustainability)의 접근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환경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더 이상 환경교육을 한정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확장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호주의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영유아들에게 일상에서 늘 접할 수 있는 환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의 필요성, 환경과 조화로운 삶을 위한 노력, 자연과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전인발달은 물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교육 실제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패러다임인 것이다(유희정, 2016). 특히 영유아기는 생애교육 초기 삶의 이해, 가치, 실행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로 지속가능성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경험이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Elliot, 2010), 이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을 지지하는 환경을 줌으로써 각 영유아의 능력과 흥미에 반응하고, 자연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삶의 일반원리를 터득하고, 삶을 조망하는 안목이 확장되길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연적인 환경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환경적 지식을 발달시키며 앞으로 미래사회의 잘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15).

2.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영유아의 놀 권리 추구

EYLF의 교사지침서에는 'Learning Though Play(놀이를 통한 학습)'의 실제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다. 놀이는 영유아의 발달, 사고, 상상력, 의사소통과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 모든 것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아주 중요하다. 그럼으로 교사는 놀이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한정된 시간으로 놀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그들의 놀이가 확장되고 풍부해질 수 있도록 교재, 교구를 제시해야 하며, 놀이 경험 이 확장되어 지식과 기술과 연결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호주 교육현장은 당연히 놀이중심이었다. 그들의 놀이 공간은 정해진 영역이 아닌 실내, 실외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놀이하였고 신체활동은 물론 간식, 음악활동, 언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놀이로 연결되어 있다. 한정된 시간과 공간으로 영유아들의 놀이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놀이에 참여할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놀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었다.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실체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 도모는 물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활동이다. UNESCO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형성해나가기 위해 인간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야 할 규범적 가치로, 동시에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통하여 형성되어야 할 가치로 '모든 사람의 인권 존중'을 제시하였다(UNESCO, 2008). '인권'은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어느 누구든 가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 문화, 발달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인간으로서 살아 갈 당연하고 합법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영유아의 권리는 포괄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영유아가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놀이를 통한 교육이다. '놀이'는 영유아 삶의 본질이며 생활 그 자체일 뿐 아니라 주변세계를 이해하고 배우는 매체로 그들의 발달을 도모하는 주된 활동이다. 또한 영유아의 특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며 권리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영유아기의 놀 권리는 아동 존재의 특정성을 확인해 주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미 아동의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1 조에는 '당사국은 휴식 및 여가,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명시하여 영유아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으며 모두에게 놀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영유아기 에는 놀이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교육과정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육의 주체인 영유아의 자발적인 흥미에서 시작된 놀이 중심의 교육이 조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식과 정보, 문자와 숫자, 영어 등을 일찍, 보다 많이, 보다 오래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영유아교육의 중요한 교육과정인 '놀이'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영유아들의 '놀 권리'는 희미해지고 있다(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영희, 2002). 교육기관에서 조차 놀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놀이를 대체하고 있어서 진정한 영유아기의 놀 권리에 대해 재고해보게 된다. 물론, 영유아들의 놀이가 학습을 저해하고 그들의 발달을 돕

지 못한다면 이는 진정한 놀이라 할 수 없다. 영유아들의 놀이는 학습을 이끄는 매개체로 활용되어야 하며(Johnson, Christie, & Wardle, 2006),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EYLF에서도 모든 영유아는 미리 정해진 수준의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기보다는, 놀이를 통한 학습에 대한 욕구와 호기심, 자신감을 발달시켜야 함을 명시하고 그들 스스로 놀이의 목적, 수단, 방법을 택하고 조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영유아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놀이 속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영유아들은 EYLF 교육의 실재를 통해 인권을 존중받게 되고, 또 받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EYLF의 교육과정을 통한 실재는 영유아가 성인으로서 미래사회 더불어 잘 살아가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유아시기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의 인권이 '놀 권리 추구'로 한정되어 명시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아동 성범죄 문제, 놀이감의 지나친 상품화 경쟁 등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로 인해 인간의 권리가 무시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허나 영유아 시기의 놀이는 그들이 갖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확보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심지어 교육현장에서도 놀이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영유아에게 놀 권리를 인정해준은 물론 영유아의 학습 환경에서 발견되는 놀이와 학습권의 조화에 따른 교육과

정과 교수방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에 영유아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이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다문화 및 전통가치 존중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정책은 다문화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호주는 60년간의 이민수용계획으로 전 세계 200개 국가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여 인구 증가는 물론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다양하고 복잡한 인종과 전통 민족의 소수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자국문화의 가치와 전통에 대하여 성찰을 해나가도록 수립하는 것이다(Race, 2011). 기본적으로 호주의 다문화 정책은 교육으로 연결되어 외국에서 호주로 이주해온 아이들에게 기존의 학교조직과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는 '호주의 새로운 아동'이 되게 하는 것이다. 호주 교육부는 다문화주의에 근거해 다문화교육을 '모든 학생이 자신의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여 교육체계 발전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인종주의와 편견이 어떤 개인의 발전을 방해하도록 허용될 수 없는 것과 같이 모든 아동들은 자신의 다문화 사회의 풍부함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자격이 있고, 기술을 개발하여 신뢰받는 세계시민으로서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호주의 다문화 교육은 '포용교육(inclusive education)'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포용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경험을 반드시 갖도록 한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학생들이 교차-문화적 이해와 상호-문화적 소통 기술을 본질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곧 학교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 Sherington, 2006). 다시말해 호주의 다문화 교육은 학교교육에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목표가 아니라 사회속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지각하고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장의 과정으로 평등, 인간존중, 다양성 등의 철학에 기초하여 미래사회의 발전적인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맥을 같이하는 개념이다(Porter, 2005). 환경교육에서 출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환경문제와 직결된 사회문제 뿐 만 아니라 인간 사회 속에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 즉 사회 불평등, 다양성 무시 같은 요소를 배제하는 것으로 출발함을 인식해야 한다(곽노의, 박원순, 이상원, 2013).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연결된 호주의 다문화교육은 영유아교육에서 부터 강조하고 있다. EYLF의 교육내용에서 말하는 문화적 유능성(Cultural Competence)이 바로 그것이다.

영유아시기에 문화적 유능성 정착은 친구들과 가족들의 삶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문화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회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존경할 만한 상호이해, 다른 세상을 보는 관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을 터득하게 되는 것 뿐 만 아니라 모든 문화에 대해 거부감 없이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문화란 무엇일까? 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문화는 성, 인류, 종교, 계급, 능력, 나이와 같은 다양성을 포함하고 그 안에서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함에 있어서 각각의 영유아의 정체성과 그들의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

이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22).

호주 영유아교육현장 대부분 현관 입구에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말과 각 나라의 국기를 붙여 놓았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호주 전통 문양을 지닌 악기와 놀이감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내용은 본 연구자가 방문한 Gowrie 어린이 센터의 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호주지도를 보여주며 호주에는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주었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존재합니다. 어린이센터도 오는 영유아들도 다양합니다. 교사도 그렇고요. 특히 영유아들에게 전통적 가치를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 문화와 원주민(Aboriginal)의 언어를 배우고 사용할 기회를 줍니다. 또한 ‘화해 프로그램’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문화교육, 전통적 가치에 대한 교사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2015, 6, 22, 면담)

다문화교육의 하나로 호주의 원주민인 에버리진(Aborigine) 및 토레스(Torres) 해협 섬주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EYLF의 문화적 유능성(Cultural Competence)은 에버리진과 토레스해협 섬주민의 문화와 발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24), 구체적으로 에버리진과 토레스해협 섬주민 영유아들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프로그램과 그 차이를 줄이고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프로

그램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교사가 에버리진과 토레스해협 섬주민 영유아들과 관련하여 문화적 유능성을 교육에 설계하는 것은 시대를 넘어선 관계, 태도, 기술,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기 전통적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유능성에 대한 교육은 우리 모두가 함께 소속되고 존재함을 알게 해주는 것이며 그들을 둘러싼 지역사회 이야기, 실제의 흐름 외에 확장된 가족, 웃어른, 전통성이라는 풍부하고 의미 있는 문화적 구조를 형성하고, 자신의 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그것들을 유지하고 확장할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양한 문화존중'이라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최소한 핵심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고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지속가능한 삶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지식을 무분별하게 습득하도록 일방적 전달 교육실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재 환경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구성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본 EYLF의 다문화 교육, 전통가치 인정은 쉽게 형성된 교육과정이다. 이는 여러 문화적 변화를 거치며 발전된 것으로 초기에는 호주 원주민(Aborigine)과 외국 이민자들의 저항이 거세었지만,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던 국가의 전향적 다문화 정책과 교육적 방안이 맞물려 다문화 교육이 실천된 것이다(Virdee & Cole, 2000). 또한 인권 교육, 평화교육 등을 통해 공존의 가치를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을 지원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행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IV. 맺음말

호주 영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생태적 자연 환경 역량을 추구하고,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 가족, 다양한 인종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놀이를 기반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살고 있는 호주의 지역 특성과 문화적 적합성을 살리는 교육으로 EYLF에서 제시한 내용과 실제에 근거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환경을 이용한 체험적인 교육과 영유아들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의 문제에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반영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발달과 인권을 존중한 아동친화적인 교육이 이루어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호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으로 살펴 본 EYLF 교육실체가 한국의 영유아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육과정에 내포되어 있으며 환경교육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실행원칙의 첫 번째는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교과를 계획하고 교육내용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영유아기 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고 호주의 EYLF 교육내용과 실제에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도출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영유아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양적으로 미비할 뿐 만 아니라 핵심가치인 사회, 경제, 환경영역도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다(신은수, 박은혜, 2012; 유영의 외, 2013).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환경교육, 생태교육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변화시키기 위한 가치, 태도, 사고에 관한 교육이

므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전체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영유아교육과정 내용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내용인 사회, 경제, 환경적 개념의 균형은 물론 기존 교육과정의 재정향 관점을 반영하여 통합적이고 삶에 대한 태도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영유아교육에서 실행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실제 상황에 직접 연관 시킬 수 있는 실천적 교수법이 필요하다. 호주 EYLF 교육실제에는 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근거한 뚜렷한 교육철학이 존재한다. 그것은 영유아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스스로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그들이 미래사회에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을 체험하고 다루게 하는 것, 자신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 그럼으로써 지식, 신념,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으로 놀이를 통해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스스로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수방법에 있어서도 매체나 강의에 의존하고 있어(정기섭, 2010), 이는 마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영유아의 흥미와 그들의 권리인 놀이를 통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출발하여 능동적으로 문제해결을 키우고 그 문화에 적응하고 다양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교수법이 필요하며 변화되는 삶속에 적용해야 하는 교육의 실제, 현실적으로 유용하고 가능한 교육과정의 적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속가능교육

의 진정한 의미와 개념인식이 필수적이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뿐 만 아니라 앞으로 지향하고 도달해야 하는 미래사회에 관계되어 지기 때문에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의식, 사고, 태도의 변화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습의 유형 -알기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 과 더불어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학습이 요구된다(조우진, 2012). 이는 외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보여주기 식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아니라 실제 필요함을 인식함으로써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생활양식의 변화하고 그것이 외부로 도출되어 실천적 모습을 보이는 교육인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정기섭(2010)은 지속가능발전교육 개념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그 의미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에서 환경교육으로 치우쳐 있거나 능동적인 교육법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삶이 변화해야 하고 그 삶은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또한 변해야 한다. 교육의 변화 중심에는 당연히 교사, 교수법의 변화가 존재한다. 따라서 교사의 인식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인식 재고찰, 개념 이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꾸준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자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오늘날 인식하게 되는 환경문제들, 사회현상들의 변화들로 인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고 건강한 관계로 유지하고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노력의 시작으로 일어난 교육으로 한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가 연동되어 전 지구적인 교육으로 행해져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학교교육이전인 영유아기 부터 시작되는 평생교육이어야 한다. 영유아기는 인간 삶의 초기과정으로 기초적인 가치관, 삶의 이해, 태도, 행동양식 등이 발달하는 시기로 지속가능성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교육적 경험이 제공되어 습관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영유아교육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호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관점에서 살펴 본 EYLF의 교육과정내용과 실제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를 기초하여 영유아의 발달, 인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이들이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실천적 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명확한 정의 규정과 실천적, 통합적, 간 학문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교육현장을 살펴보면서 이를 적용하고 있는 EYLF의 교육과정을 접목시켜보았다. 현장에서 살펴보지 못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호주의 EYLF로만 한정되어 연구한 아쉬움이 있으므로 추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유아교육현장에서 잘 행해지고 있는 타국가와의 비교연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이 다양한 측면에서 실현되고 있는 폭넓은 현장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곽노의, 박원순, 이상원(2013). 유아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4), 419-436.

- 김규수(2012). 아동존중 교육과 교직원의 자질. **홀리스틱교육연구**, 16(2), 1-18.
- 김숙자, 이경혜(2015).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의 공존지향적 영유아교육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식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435-464.
- 김은정, 유영의, 신은수, 박은혜(2013). 독일, 영국, 호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분석과 학교 교육과정 및 유아교육과정의 시사. **열린유아교육**, 18(4), 75-100.
-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녹색성장 보고서 요약집
- 남경희, 조의호(2013). 호주 지속가능성 교육의 성립과 특징. **홀리스틱연구**, 18(1), 29-48.
- 서문희, 이혜민(2013). **호주의 보육 유아교육정책동향**. 서울: 육아정책연구.
- 신은수, 박은혜(2012).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과정의 재방향 설정. **육아지원연구**, 7(1), 27-50.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7). **지속가능발전교육지침서**.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영의, 김은정, 신은수, 박은혜(2013).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한국의 교육 정책 및 현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3), 319-341.
- 유희정(2016). 호주 아동중심 EYLF의 교육체계와 그에 따른 실체가 누리과정 운영에 주는 시사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119-143.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영희(2002).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실시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아동학회지**, 23(4), 137-152.
- 조우진(2012). 지속가능발전교육: '발전'비판과 대안을 위한 렌즈. **국제이해교육연구**, 7(1), 39-69.
- 정기섭(2010).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조사. **발도로프교육연구**, 2(1), 65-96.
- 최석진, 김이성, 김현정, 이재혁, 최미영(2009). 세계 주요국 환경교육의 주제별 비교연구. (사) **한국환경교육학회 2010년 학술대회자료집**, 125-133.
- 하정연(2004). 생태유아교육의 교육관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논총**, 13(1), 67-84.

- Australia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2009).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Commonwealth of Australia.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2010). *Educator's Guide to 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of Australia*. Commonwealth of Australia.
- Elliot, S. (2010). Essential, not optional: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in early childhood centres. *Exchange*, 2, 34-37.
- Campbell, C. & Sherington, G.(2006), "A Genealogy of an Australian System of Comprehensive High Schools: The Contribution of Educational Progressivism to the One Best Form of Universal Secondary Education(1900-1940)". *Paedagogica Historica*, 42(1-2), 191-210.
- DEH(2005). *Education for sustainable future*. Canberra: Curriculum Corporation.
- Johnson, J. E., Christie, J. F. & Wardle, F.(2006). **놀이, 발달, 유아교육**(이진희, 손원경, 안효진, 유연옥 공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 Porter, T. B.(2005). Identity subtext in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sustainability, *Electronic Journal of Radical Organization Theory*, 9(1), 102-115.
- Race, R.(2011), *Multiculturalism and Education*. London & NewYork: Continuum.
- UNESCO(2005).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 Paris, France: UNESCO.
- UNESCO(2008). *The Contribu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a sustainable society*. Unesco.
- Virdee, S. & Cole, M.(2000). "Race and racism and resistance", M. Cole(ed.), *Education, Equality and Human Rights*, London and New York: Croon Helm.

Abstract

Australia's EYLF educational content and practice from the ESD perspective

You, Heejung
(Hanshi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a suggestion for Korea'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of early childhood. This was done by looking into EYLF, Australia's basic frame for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from the ESD perspective. For this, the researchers visited the Australian education institution that trains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Place examination and related professional interview was conducted, along with analysis and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s on early childhood curriculum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published. Australia's ESD started as an eco friendly environmental education. It has developed and now deals with the human rights, peace, citize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s well. In fact, EYLF Australia includes environmental education, children friendly human right education, and the communal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ir educational curriculum and in real life. Based on the distinctive quality of ESD in Australia'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practice, it is expected that the environmental education operated in Korea's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practice will reestablish into the integrate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can actualize the sustainable life socially, 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ly.

Key words :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EYLF Australia, environmental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투고신청일 : 2016. 04. 29

심사수정일 : 2016. 06. 12

게재확정일 : 2016. 06. 27